

지역 소식 통

부안군, 2025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체결

부안군은 전북 광역여성새로 일하기센터와 20일 부안군청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를 위한 2025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부안지역 여성친화 및 유망기업 15개 업체 중 (주)참파제, 부안성모병원,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유)진코푸드시스템, 바다의 향기, 농업회사법인 (유)떡두깨끼, 부안바게팅영농조합법인 등 7개 기업체 관계자는 지역 내 여성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 조치에 협조할 것을 협약했다.

협약식에 이어 정부일자리지원사업 설명회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컨설팅 등을 통해 워라벨 우수기업 사례 소개 및 정부지원제도 시책 홍보를 진행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줄포만 갯벌 블루
카본 확대 해양정화활동

부안군은 지난 19일 줄포만 갯벌 염생식물 군락지 확대 조성을 위해 협력기관과 함께 염생식물 종자 파종 및 해양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군과 서해바다 블루카본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안해양경찰서, 포스코인앤씨, 월드리전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서해 바다단풍 블루카본 확대 조성과 지속 가능한 갯벌 생태계 조성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토종 염생식물인 칠면초·해홍나물 종자 총 20kg을 파종했다.

또 서해 바다단풍 블루카본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칠면초, 함초, 해홍 등 총 68kg의 염생식물 씨앗을 파종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깨끗한 갯벌 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정화활동을 병행 갯벌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함께 홍보했다.

특히 염생식물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염생식물을 파종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해양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등 갯벌생태계 보호 의식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발전 앞당길 천재일우의 기회”

심덕섭 고창군수, 기자회견 열고 서해안철도 국회정책포럼 후일담 전해

심덕섭 고창군수가 “서해안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 등 고창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일 오전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서해안철도 건설 및 군정현안 추진사항 언론브리핑’을 열었다. 심 군수는 지난 18일 열렸던 서해안철도 국회정책포럼의 후일담을 전하고, 노을대교 총사업비 증액,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심 군수는 “서해안철도 국회정책포럼이 국회의원 15명, 전북·전남 도지사 2명, 시장·군수 6명 등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로 성료됐다”며 “논리와 기세싸움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연말께 발표될 국가계획에도 좋은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후보지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되는 경사에 대



심덕섭 고창군수는 20일 오전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서해안철도 건설 및 군정현안 추진사항 언론브리핑’을 열었다.

한 소감도 밝혔다. 고창군은 현재 국내 유일의 국제규격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노을대교의 총사업비도 400억원 가량 늘어(4217억원) 빠른 착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심 군수는 “노을대교와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은 고창 해안권 발전은 물론, 올림픽 성공 개최에 기여하고, 국

제적인 스포츠 메카로 자리 잡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봄 축제와 행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도 당부했다. 고창군에선 대한민국 수산인의날(4월1일), 제3회 고창벚꽃축제(4월4~6일), 제22회 고창청보리밭축제(4월9일~5월11일)가 겹없이 이어질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의 대표 관광시설인 '천사하어로즈 복합놀이시설'과 '국민여가캠핑장'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관광시설 우수사례 정읍 방문

정읍 국민여가캠핑장 · 천사하어로즈, 전국 지자체서 ‘주목’

정읍시의 대표 관광시설인 ‘천사하어로즈 복합놀이시설’과 ‘국민여가캠핑장’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일 충남 서천군의회 군의원(의장 김경제)과 관계 직원들이 관광시설 운영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정읍시를 방문하며 이들 시설이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서천군의회 관계자들은 내장산 문화관광 일원에 위치한 천사하어로즈와 국민여가캠핑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시설 운영 현황과 성공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국민여가캠핑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3년 지자체·공공우수 야영장’으로 선정된 바 있어,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다.

2015년 8월 개장한 국민여가캠핑장은 약 39만㎡ 규모로 이글루형 캠핑장, 오트캠핑장, 카라반, 글램핑 등 82면의 캠핑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넓은 잔디광장과 음악과 함께 어우러지는

분수쇼, 실개천과 발담금터 등 자연친화적 요소를 더해 가족 단위 캠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민여가캠핑장과 함께 자리한 천사하어로즈 복합놀이시설도 전북 최대 규모의 실내 놀이시설로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2020년 개관한 이곳은 에어리얼 로프 코스, AR 트리아트 존, 스크린 스포츠 등 총 39개(17종)의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부모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곳의 관광 매력을 한층 더 높인 요소 중 하나는 지난해 개통한 순환열차다. 국민여가캠핑장과 천사하어로즈 주위를 운행하는 이 열차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조성돼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인근에 위치한 입산 물체합단지, 목재문화체험장, 차향문화관도 정읍의 체험형 관광 명소로 입소문을 타며 방문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2025 정읍벚꽃축제’ 4월 4일 개막

4월 6일까지, 꽃과 사람 · 다채로운 먹거리 등… 11일부터 정다운 벚꽃 주막 이어져

정읍의 대표적인 봄 축제인 ‘2025 정읍벚꽃축제’가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정읍천 벚꽃로와 정읍천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의 슬로건은 ‘낭만벚꽃, 낭만정읍’으로 벚꽃이 만개한 정읍천에서 아름다운 봄이 있는 힐링 축제로 꾸며진다.

정읍천 벚꽃로는 정읍IC 사거리에서 상동교까지 4km에 이르는 벚꽃 명소로, 2000여 그루의 벚나무가 봄이 오면 장관을 이룬다. 시는 1991년부터 매년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축제를 개최했으며 봄 명소로 자리 잡았다.

올해 축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최근 인



기 키워드인 ‘웰니스’를 연계해 벚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했다. 축제장에는 정읍의

건강한 밥상과 대표 치유 먹거리인 지황을 체험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첨단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도약… R&D 지원사업 설명회

첨단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정읍시가 첨단바이오 R&D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기업 유치와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섰다.

시는 지난 19일 정읍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대강당에서 2025년 첨단바이오 R&D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지역 내 기업체와 투자 협약

(MOU) 기업, 입주 희망 기업, 혁신 연구기관 등 2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시가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첨단바이오, 바이오융복합, 글로벌 협력, 비임상 등 4개 분야의 첨단바이오 R&D 지원사업

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어 사업의 지원 내용과 추진 방식, 신청 절차를 안내한 후 기업과 사업 수행 주체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4회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

26일부터 참가자 모집 시작

고창군이 오는 4월25~27일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과 선운산 유스호스텔 일원에서 ‘제4회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는 고창갯벌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새 탐조대회다. 참가자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새를 찾아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탐조 활동을 통해 고창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에는 32개팀, 124명이 참여하여 총 146종 1,440건의 탐조 기록을 남겼다. 고창군 미기록종인 무당새, 조롱

이, 흰꼬리도요 등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록들은 고창갯벌의 조류 서식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제4회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 참가 신청은 3월26일 오전 10시부터 28일까지,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 공식 홈페이지(<http://gochangbbr.co.kr/>)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최순필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올해 대회는 영국, 홍콩, 일본 등 해외 참가팀이 더해지며 더욱 풍성한 국제적 행사로 거듭나겠다”며 “탐조 활동을 통해 자연을 즐기며 환경보호의 의미를 되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